



15일 장성 학교가자 캠퍼지에서 KIA 이성우, 이흥구, 김주형, 백용환, 홍세완 코치, 김다원 선수(왼쪽부터 빨간 유니폼)가 팬들과 '희망의 벽화'를 그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방망이 놓고 ‘사랑의 붓’ 잡은 호랑이

KIA 홍세완 코치·선수들 장성서 ‘희망의 벽화’ 봉사…오늘부터 선수 모드로

휴식도 마다하고 개인 훈련에 나섰던 KIA 선수들이 방망이 대신 붓을 들었다.

KIA 이성우·백용환·이흥구 ‘포수 3인방’과 김주형·김다원 ‘85동기’가 15일 장성에서 ‘희망의 벽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선수들은 폐교에서 아이들의 신나는 놀이 마당으로 변신한 장성의 한 캠퍼지에서 거리의 화가가 됐다. 현장 학습 일환으로 길을 나선 치평중 25명의 학생과 KIA를 응원하는 팬들까지 어우러지면서 조용하던 시골 마을이 모처럼 북적였다.

시골 버스 정류장에 무료 벽화를 그리면서 시작된 문화봉사활동 단체 ‘좋은 세상 만들기’의 정수 대표와 홍세완 타격 코치의 인연이 계기가 됐다. 12월 챔피언스필드에서 개인 훈련을 하며 휴식기 아닌 휴식기를 보내고 있던 선수들은 홍세완 코치의 이야기에 흔쾌히 시간을 내어 장성으로 향했다.

탁구장으로 변신한 교실 벽면이 선수들의 새로운 무대가 됐다. 참가 선수들의 사진을 바탕으로 해 밑그림이 그려졌고, 선수들은 봉사활동에 나선 학생·팬

들과 빈 공간에 색을 칠해 나갔다.

서둘지만 꼼꼼하게 붓을 놀리는 선수들의 얼굴은 진지하다 못해 비장하기도 했다. 서로의 그림을 보면서 웃음을 터트리기도 하는 등 밝은 분위기에서 이들의 낯선 도전이 이뤄졌다. 가장 먼저 윤곽이 드러나 인물은 “색칠을 하는 게 재미있다”던 백용환이었다. 이후 차례차례 벽면이 채워져갔고, 오후 10시 시작된 이들의 작업은 오후 2시가 다 되어서 종료됐다.

자신의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 보던 선수들은 또 다른 자신과 기념 촬영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벽화 그리기가 끝난 뒤에는 자원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야구 퀴즈’ 시간을 열고 사인볼을 선물하기도 했다.

보람있는 시간을 보낸 5명의 선수. 이들은 16일부터 다시 야구선수로 돌아가 2016시즌을 준비한다.

19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랑’ 김주형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오늘 하루 쉬었으니까 내일하고 모레 운동을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해야겠다”고 웃었다. 이흥구도 “지난해 마무리 캠프와 달리 이번에는 안일하게 했던 부분이 있어서 반성을 많이 하면서 12월을 보내고 있다. 또 새로운 시즌이 시작된다. 착실하게 운

동을 하면서 남은 휴식기를 보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선수들과 따뜻한 겨울을 만든 홍세완 코치에게도 즐거운 하루였다.

홍세완 코치는 “선수들이 낯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활동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스스럼없이 어울리고 즐겁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다. 선수들이 운동도 적극적으로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다양한 사람 나눔 활동을 하면 좋겠다”며 “휴식기이지만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좋아 보인다. 남은 휴식기 잘 보내고 2016시즌 잘 준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10개 구단 회의

승리수당 없앤다 위반땐 벌금 10억

파울 타구도 합의 판정

프로야구 10개 구단 단장들이 내년 시즌부터 승리수당인 ‘메리트’를 없애는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를 위반한 구단에는 10억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구단 고위 관계자는 15일 “10개 구단 단장들이 내년 시즌부터 메리트를 없애는데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에는 내부에서 제보가 나와야 하는데, 내부 제보자가 고감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1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방안은 지난 10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비공개로 열린 ‘KBO 윈터미팅’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에는 위반 시 벌금 5억원을 매기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메리트는 프로야구 선수가 받는 승리수당이다. 연봉, 계약금, 개인 성적에 따라 받는 보너스와는 별개다.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순위 싸움이 걸린 중요한 일전을 앞두고 승리한 경기수에 따라 돈을 풀고 선수단이 각자의 방식으로 나눠 가져온 것은 야구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잡음도 적지 않았다. 롯데 자이언츠의 경우 지난 6월 메리트 시스템을 두고 선수단과 프런트가 갈등을 빚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밖에 파울 타구에 대해서도 심판 합의 판정을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배트에 공이 맞았으나 아니면 헛스윙이었느냐가 판정 대상이다.

/연합뉴스



2015 가장 빛난 스포츠인

세리나 1위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세계 랭킹 1위 세리나 윌리엄스(34·미국)가 2015년에 가장 빛난 스포츠인으로 선정됐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2015년 올해의 스포츠인에 올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3개를 휩쓴 윌리엄스를 선정했다”고 15일(한국시간) 발표했다.

SI 선정 올해의 스포츠인 후보에는 윌리엄스 외에 남자골프 세계 1위 조던 스피스(미국), ‘축구 영웅’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3관왕 우사인 볼트(자메이카) 등이 올랐었다. 윌리엄스는 올해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 윌본던을 차례로 휩쓸어 1988년 슈테피 그라프(독일) 이후 27년 만에 테니스 퀸리더 그랜드 슬램 가능성을 부풀렸으나 마지막 대회였던 US오픈에서 우승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올해 53승3패의 성적을 남겼고 1년 내내 세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은 성적을 인정받아 SI 올해의 스포츠인의 영예를 누렸다.

/연합뉴스



“류현진 복귀 못할 확률 20%” 다저스, 새로운 선발 찾아야

LA타임즈 지적

미국 프로야구(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가 내년 제3선발 투수 류현진(28)의 복귀를 장담하지 말고 새로운 선발 투수 영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LA 타임즈의 스티브 딜백 기자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다저스, 2016년 류현진 복귀에 희망을 갖되 확실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딜백 기자는 “투수 로테이션 문제가 심각한 다저스 입장에서는 류현진의 복귀가 절박하다”면서 “현 투수진으로 클레이튼 커쇼, 알렉스 우드, 브렛 앤더슨만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영입한 이와쿠마 히사시가 정상적으로 합류한다고 해도 선발 한 자리가 빈다”며 “내부에서 한 자리를 채울 이상적인 후보는 좌완 류현진이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현진은 2013년 메이저리그에 입성해 2014년까지 2년 동안 28승 15패 평균자책점 3.17, 이닝당 출루허용 1.20을 기록했다. 딜백 기자는 류현진의 활약을

떠올리며 “완벽한 3선발의 모습”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류현진은 올해 5월 22일 왼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근육이나 관절막 등 주변 조직이 관절과 잘 붙어 있도록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관절 외손이 찢어진 상태였다. 하지만 회전근에는 문제가 없다.

다저스 주치의이자 류현진의 수술을 집도한 닐 엘라트라체 박사는 “최근 5년 연구 결과를 보면 어깨 관절과 회전근을 동시에 수술한 선수 중 57%가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관절 외손만 손상되면 80%가 수술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딜백 기자는 엘라트라체 박사의 연구 논문을 인용해 “류현진이 정상적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80%”라고 했다. 하지만 딜백 기자는 류현진이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할 확률 20%에도 주목하며 “선발진에 포함할 투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저스는 류현진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정말 조심히 다뤄야 한다”며 “그래서 선발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월드컵 시리즈 결과 만족…스스로 대전”

‘빙속 여제’ 이상화 금의환향…“당분간 쉬래요”

1~4차 대회 금4·은2 획득…500m 랭킹 1위



‘빙속 여제’ 이상화(26·서울일번)가 2015~201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시리즈에서 거둔 성적에 대해 “만족스럽다”는 중간 평가를 내렸다.

최근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치러진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4차 대회를 마치고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이상화는 “여름 내내 땀을 흘렸던 훈련의 성과 덕분에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며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이상화는 이번 시즌 월드컵 1~4차 대회 500m 디비전A(1부리그)에서 총 8차례 레이스를 펼쳐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따내면서 랭킹 포인트 680점을 쌓아 헤더 리처드슨(미국·560점)을 제치고 500m 랭킹 1위를 내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이상화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서 스스로 놀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시즌 막판에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주변의 평가 때문에 여름에 훈련을 열심히 했다”며 “강도 높은 훈련 덕분에 이번 시즌 4차례 월드컵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고 있다. 만족스럽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즌 초반 중국의 장훙(27)이

500m 종목에서 라이벌로 떠오른 것에 대해선 “신경을 별로 안 쓰고 있다”며 “장훙은 지난해 소치 올림픽에서도 워낙 잘 뛴 선수다. 하지만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이상화는 이번 시즌 500m 레이스에서 초반 100m 기록을 10초 2~3대로 꾸준히 유지하면서 성적도 덩달아 좋아지고 있다.

이상화는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구간도 중요하다”며 “스타트 연습도 많이 하면서 마지막 구간 레이스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레이스의 전체적인 균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차례 월드컵을 치르는 동안 부상이 전혀 없었다. 월드컵 4차 대회 500m 1차 레이스에서는 트랙 레코드를(37초59)까지 세웠다”며 “나름 뿌듯한 결과”라고 말했다.

또 이번 시즌을 앞두고 스케이팅 부츠를 4년 만에 교환한 이상화는 “새 시즌을 맞아 스케이팅날과 부츠까지 모두 바꿨다”며 “부츠는 내 발 모양 그대로 분을 따서 만들어 전혀 불편함 없이 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귀국한 이상화는 이번 시즌 4차례 월드컵을 치르면서 쌓인 피로를 푸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상화는 내년 2월 러시아에서 치러지는 2016 세계 종목별 선수권대회에 나설 예정이 없다.

/연합뉴스